



■ 한국 초반 금상승 ... 역대 최다 메달 딸까

역도·태권도 선전팬 ‘서울 올림픽’ 넘어선다

(금 12·은 10·동 11)

양궁 남녀개인전 금 1~2개 추가 가능 여자 핸드볼·배드민턴 등 선전 기대

2008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한 한국선수단의 초반 성적이 경이롭기 그지없다.

한국은 박태환(19·단국대)이 수영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대회 나흘째인 12일 오후 5시 현재 금메달 5개와 은메달 5개로 국가별 종합 메달순위에서 중국(금11,은3,동4)과 미국(금7,은6,동8)에 3위를 오르는 선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한국의 목표는 금메달 10개를 획득해 아시아 2위와 세계 10강을 지키는 것이었다. 단순히 금메달 숫자만 놓고 보면 일찌감치 5부능선을 돌파해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던 1998년 서울대회(금12,은10,동11)와 1992년 바르셀로나대회(금12,은5,동12)를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선수단은 초반 패주를 받으면서도 신중함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정형 태릉선수촌 훈련지원팀장은 “당초 메달 예상보다 크게 앞섰다고 할 수 없다. 첫 금메달을 획득한 유도 최민호와 수영에서 1위를 차지한 박태환이 선수단 사기를 크게 올린 것은 사실이나 생각하지 못

한 메달이 나와 성적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 대회 첫 날 최민호가 ‘한 판 퍼레이드’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분위기를 잡았고 이틀째 박태환이 도저히 낚지 못할 벽으로 여겼던 자유형 400m에서 1위로 터치패드를 찍어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하지만 종합순위에서 초반 3위를 달리게 된 원동력은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양궁 경기일정이 예년과 달리 초반으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역대 올림픽에서 양궁은 대개 중후반에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서는 앞당겨졌다. 이 때문에 한국은 남녀 단체전을 휩쓸며 금메달 2개를 보태면서 초반 메달 레이스에서 2,3위를 오르내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는 역시 양궁과 태권도, 역도 등에서 금메달 추가가 예상된다.

남녀 개인전을 남겨 둔 양궁에서 최소한 1개, 남녀 4체급에 출전하는 태권도에서는 1~2개, 장미란(고양시청)과 사재혁(강원도청)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역도에서도 1~2개의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다.

구기종목은 세계의 벽이 높지만 여자 핸드볼과 야구, 배드민턴 여자 복식 등에서도 한가닥 희망을 갖고 있다. 핸드볼의 경우 주전 선수들의 노쇠화로 우려했으나 예선 1차전에서 최강 러시아와 무승부를 거두는 등 선전을 펼쳤다. 야구는 한국과 쿠바, 일본, 미국이 ‘빅4’로 불리는 가운데 의외성이 많은 종목 특성상 단판 승부에서는 우승하지 말란 법도 없다. /연합뉴스



코리아 파이팅!

한국 선수단이 베이징올림픽 초반 레이스에서 금메달 행진을 이어가며 크게 선전하자 경기장에는 수많은 한국 응원단이 몰려들어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 60주년 8·15특별 대사면

국민 대통합·경제살리기 ‘정치적 결단’

야권선 “기득권층에 면죄부” 비판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등 총 34만여명에 대한 8·15 사면을 단행하면서 국민 통합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하면서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심도 많았다”면서 “나도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으면서 투자살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에 대한 조기 면죄부가 비록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고 여론의 질

타를 받을 공산이 크지만 시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경제5단체에서 요구한 기업인들을 대부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계 ‘기살리기’에 적극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은 그러나 이번 사면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국민대통합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 동의도 없이 ‘범법’ 재벌 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준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최근 유한열 상임고문의 국방부 납품비리, 김옥희씨의 금품비리 등으로

여권이 공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재벌 사면’이 부각되면서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감지됐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경제 살리기와 국민대통합에 역점을 둔 사면”이라고 평가한 뒤 “사면받은 사람은 이번 조치에 담긴 관용의 정신을 새겨 경제 살리기와 국민대통합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재벌총수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은 ‘국민 분열용’ 사면”이라며 “이번 ‘회장님 사면’은 기득권층은 어떻게든 면죄부를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과 국민 위화감만 조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특별 사면·복권 주요 대상자 명단

◇정치인=▲한광육(전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권영해(전 안기부장) ▲권해욱(전 주공사장) ▲김용재(전 건교부장관) ▲박상규(16대 민주당 국회의원) ▲김기섭(전 안기부 기조실장) ▲김운용(16대 민주당 국회의원) ▲문희갑(전 대구광역시장) ▲이훈평(16대 민주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조충훈(전 순천시장) ▲김인규(전 마산시장) ▲김일동(전 삼척시장) ▲동문성(전 속초시장) ▲예강현(전 용인시장)

◇언론인=▲김병건(전 동아일보 부사장) ▲방상훈(전 조선일보 사장) ▲조희준(전 국민일보 사장) ▲송필호(전 중앙일보 대표이사) ▲이재홍(전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기업인=▲나승렬(전 거평그룹 회장) ▲최순영(전 신동아그룹 회장) ▲강희운(성원건설 대표) ▲김관중(전 동서증권 사장)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김승정(SK글로벌 대표이사) ▲김영진(전 진도 회

주철(SK글로벌 대표이사) ▲손길승(전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안병균(전 나산그룹 회장) ▲양갑석(전 교협 사장) ▲엄상호(전 건영그룹 회장) ▲이내흔(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이주은(글로벌비씨 대표이사) ▲장치혁(전 고합 회장)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원석(전 동아그룹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 ▲이동보(전 코오롱TNS 회장) ▲이재관(전 새한그룹 부회장) ▲윤영달(크라운제과 회장) ▲이중근(부영건설 회장) ▲이남형(부영건설 사장) ▲김병희(전 한국종합건설 회장) ▲박보희(금강산그룹 회장) ▲신윤식(전 하나로텔레콤 회장) ▲오상수(새물기술 대표이사)

◇선거사범=▲김기석(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김광근(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김옥두(전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박찬중(전 무소속 국회의원) ▲우근민(제3회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당선자) ▲양인섭(제3회 지방선거 진도군 당선자) ▲임호경(제3회 지방선거 화순군 당선자) ▲박

“지방인사 요직 등용”

후 대통령, 한나라 박희태 대표 회동서 밝혀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최근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연세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런 비리 사건에 대해 앞으로 관련자의 지위고하와 소속여부를 막론하고 사정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가진 오찬 정례회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은 과거처럼 언론이나 야당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여권이 수비에 몰두하다가 제기된 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가 먼저 비리단서를 포착해 사정기관에 철저히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유한열 사건은 즉각 윤리위를 열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차제에 당 윤리위원들은 깨달스럽더라도 당 자정에 도움이 될

만한 외부 인사를 영입해 당을 깨끗이 하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임 KBS 사장 인선과 관련, 박 대표는 “국민들로부터 그 사람이라면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물로 인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박 대표로부터 최근 지방 탐방결과를 설명되면서 “지역 통합을 위해서 지역에 뿌리내리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야말로 지방인사를 적극 발굴해서 중앙직 또는 요직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 “당에서 이런 인물을 발굴, 천거해달라”고 당부한 뒤 배석한 맹형규 정무수석에게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의 훌륭한 인사들의 인재파일을 만들어 향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